

# “이혼한 배우자 간통도 처벌”

대법 “뒤늦게 간통 사실 알아도 고소 가능” 판결

간통 행위 후 3년안·인지 후 6개월내 고소해야

간통 사실을 결혼생활 당시에는 불 랐다 이혼 후 수개월 뒤 알았다면 배 우자를 고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법적인 혼인 생활 중 간통했을 때에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간통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처벌을 원할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해야 한다.

대법원이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고소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혼한 후 뒤늦게 전 부인의 간통죄

를 처벌해 달라는 A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내연남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인인 A씨는 부인과 잣은 부부싸움을 하다 2005년 6월 혐의 이혼을 했으나 어린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 부인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한 집에 살지만 법적인 부부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이혼한 부인의 휴대전화에 이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본 A씨는 내연남인 B씨를 찾아가 이혼 전부터 간통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인과 B씨를 한 달 뒤 고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간통죄가 성립한

다는 차원에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간통은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또 다른 간통죄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C씨가 “고소인인 남편과 부인(내연녀)이 ‘이혼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냉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통을 용서한다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한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 고소인이 간통한 배우자와 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동거한다고 해서 간통을 묵시적으로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설치된 철제 칸막이. 높이 2m·길이 150m에 불과한 이 칸막이가 상인들 간 경쟁의 골을 깊게 패이게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10년 이웃’ 갈라논 2m 칸막이

각화동 농산물시장 광주청과·원예농협 철거문제 마찰

영업 지역을 가르는 칸막이가 십수 년간 부대끼며 살아온 상인들을 갈라놓았다. 높이 2m에 불과한 칸막이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된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내 (주)광주청과·증·도매인 30여명과 원예농협 소속 증·도매인 20여 명이 몸싸움을 벌이며 2시간여 동안 대치했다.

발단은 지난 1991년 2월 농산물 도매시장(약 9천755.4㎡) 내에 설치한 높이 2m·길이 150m의 철제 칸막이. (주)광주청과 측은 도매시장 주요 진입로가 원예농협 방향으로 놓여 있어 영업에 지장을 겪고 있다며 칸막이를 설치하려니 장사가 안되니까 철거하라고 원예농협 측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특히 3년 전 서부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으로 연간 매출액(약 800억원)이 20% 감소하자 지난



14일 칸막이 40m를 없앴고, 이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려다 이를 반대하는 원예농협 측 상인들과 마찰을 빚은 것이다.

원예농협 측은 “91년엔 광주청과 근처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 손님들을 독차지하려고 칸막이를 설치하려니 장사가 안되니까 철거하라고 한다”며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는 7월 말까지 칸막이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일보 ‘언론윤리 자율실천 결의대회’ 광주일보사 임직원들은 지난 21일 담양군 금성면 덕산종합복지관 운동장에서 창사 55주년 기념식 후 ‘언론윤리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광주일보는 언론자유 수호·독자에 대한 의무·기자 품위 유지·중립성과 올바른 정보 사용·취재활동의 원칙 등 보도와 관련된 세부준칙을 마련, 이날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 농협 직원과 짜고 억대 대출사기 적발

알선자 등 3명 구속

농협 직원이 끈 억대 대출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22일 신용불량자·실업자 등 대출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인터넷을 통해 모은 뒤 농협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오모(35)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및 양 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대출을 해 준 서광주농협 S지

점 직원 김모(35)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대출 회망자 50여 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 9억3천3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로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농협직원 김씨는 대출을 해 주고 사례비 2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대학생이 인질 강도

광주 서부경찰은 22일 흉기를 들고 아파트에 침입, 중학생을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한 오모(19)씨를 인질 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 K대 1학년인 오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H아파트 신모(44)씨의 집에서 아들(15·3등)을 인질로 삼은 뒤 가스관을 자른 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며 현금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오씨는 집에 돌아온 신군의 어머니(43)가 “현금을 은행에서 찾아와야 한다”고 딸(9·초등 2년)을 데리고 나온 뒤 신고 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운전면허 시험 첫 응시자 학원서 기능교육 받아야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은 제1·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운전학원 등에서 최소 3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

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최소한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예전에 운전면허를 막았다가 취소돼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새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주행시험 응시료가 현행 1만8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오르는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가 5년 만에 인상됐다.

자세한 인상 내역은 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police.go.kr/police-new/konggiList.do](http://www.police.go.kr/police-new/konggiList.do))

/연합뉴스

전남·북 시군 지사모집  
[www.party-food.co.kr](http://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  
파티외식산업

#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 시외·시내 출장전문**

**★ 체육대회·야유회**

**★ 식탁·의자 무료지원**

**★ 연회장 주차장 완비**

# 파티외식산업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

## 구름가득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4월 23일

(음 3월 7일)

◇전국날씨

한국기상청

구름많음	9~22°C
구름많음	8~19°C
구름많음	12~19°C
구름많음	10~20°C
구름많음	9~23°C
구름많음	8~20°C
구름많음	8~21°C
구름많음	9~22°C
구름많음	8~23°C
구름많음	7~19°C
구름많음	10~20°C
구름많음	8~22°C
구름많음	6~23°C
구름많음	8~22°C

서해남부  
안나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만나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안나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만나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풀 < 06:37 18:29 셀풀 < 11:47 23:33

여수 밀풀 < 01:05 13:01 셀풀 < 07:25 19:08

▲해뜸 05:51 ▲해침 19:11 ▲달듬 10:28 ▲달짐 00:53

◇주간날씨

날짜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0/21	10/20	8/21	7/22	10/22	11/21

## ■ 가정용 살충제 스프레이 위험성은?

### 분무때 불꽃 닿으면 ‘화염방사기’

### 광주 40대, 중화상 입고 숨지기도

가정용 살충제 스프레이는 얼마나 위험할까?

지난 16일 살충제 스프레이 폭발로 전신 2도의 화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이던 김모(46·광주시 서구 광천동)씨가 20일 오전 11시30분에 끝내 숨졌다. 김씨는 당시 국을 끓이기 위해 불을 켜 놓은 가스레인지 주변에 바퀴벌레가 나타나자 H회사 제품 살충제를 뿐만 아니라 화를 당했다. 분사된 스프레이 액이 ‘불길 통로’가 되면서 통이 폭발했던 것이다.

화기(火器) 주변에서 살충제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불안하다. 가스라이터나 부탄가스통을 넣는 것과 같다. 이는 스프레이 성분 속에 액화석유가스(LPG)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실험 결과 탁자 위에 놓은 부탄가스(220g)에 불을 끓이면 탁자가 산산조각이 나고 탁자파편은 4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간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모기·바퀴벌레 살충제 스프레이 (500g)에는 36~63g의 LPG가 포함돼 있다. 가스에 불이 붙는 화염속도는 1초에 최고 3천500m나 된다. 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으며, 옷·이불 등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는다. 공기보다 두 배 무거운 가스(비중 2.0)의 특성상 바닥에 깔려 있다가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 폭발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용수과장은 “스프레이가 폭발하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한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납붙임 접합 용기’의 뚜껑·바닥은 분해되지 않고 날아간다”며 “총구에서 총알이 발사되는 것처럼 접합된 압력을 받아 날아가기 때문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과장은 “가급적 밀폐된 공간에서 지나친 스프레이 분사를 자제하고, 화기 인근에서는 절대 뿌리면 안 된다”며 “보관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위험하니 차량 안에 절대 두지 말자”고 조언했다.